

김춘수 초기시 분석(I)

강 영 기*

차례

- I. 프롤로그
- II. 형상화된 의식의 두 개 틀
- III. 원시적 생명력의 구체화—'공존' 의식
- IV. 에필로그

I. 프롤로그

우리 현대문학사에서 서정주, 김춘수, 김수영은 나름대로 자신만의 지닌 시작(詩作) 방법을 통해, 하나의 영역을 완성한 시인들이다. 특히, 김춘수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단위로 주목할 만한 변모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속에서 자신의 의도적인 실험의식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실험적 순수시의 추구를 통해 무의미시학을 완성하였고 그에 따른 언어의 미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시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의 첫 시집인 『구름과 薔薇』(1948)에서부터 『저울 속의 천사』(2001)에 이

르기까지 계속되는 왕성한 시작(詩作)활동은 언어의 미를 계속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김춘수의 경우도 여느 다른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초기시에는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시작(詩作)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출간된 그의 시집 『구름과 薔薇』, 『눈』, 『旗』, 『隣人』, 『第 1 詩集(選集)』은 이후에 출간된 다른 시집의 시들에 비해 현저하게 미숙하다는 점과, 미완성, 비개성적인 면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평자들에게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시작(詩作) 태도를 고려 할 때 그의 시는 계속적인 반성의 산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시인의 전(全)생애에 걸친 작품활동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기시의 이해가 필수적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시인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시의식은 풍부하고 다양한 이미지로 변주되어 시어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초기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김춘수 초기시 분석을 통해 그의 초기시에 나타나는 시의식과 그 의의를 밝혀내는데 이 글의 의미를 둔다. 이런 이유는 대체로 시에 있어서 시어는 대상이 충일된 세계를 환기시키며, 그러한 대상은 시인의 의식세계를 드러내는 결정체로, 시인의 선택에 의해 독특한 시적 대상으로 형상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인의 시적 대상들에 관한 연구는 시인의 의식세계를 가장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라 여겨진다. 분석 대상으로는 1948년부터 1954년까지 발행된 그의 시집 『구름과 薔薇』, 『눈』, 『旗』, 『隣人』, 『第 1 詩集(選集)』으로 한다.

II. 형상화된 의식의 두 개 틀

김춘수 초기시에 나오는 의식은 두 개의 큰 틀 속에서 공존하며 나타난다. 하나는 '존재' 탐구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감상' 추구 의식이다.

이런 그의 의식은 그의 첫 시집인 『구름과 薔薇』라는 시집 제목에서 잘 보여준다. '구름'은 현존보다는 부재의 속성이 강한 대상이라고 생각해 '허무'와 '무상'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장미는 관념이며 하나의 이국적 취미"로 보고 있다.

이런 초기시에 나타난 두 개의 의식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 또는 하나의 제재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형성되어 시로 형상화되고 있다.

1. '존재' 탐구 의식

존재라는 것은 실제로 있음, 또는 있는 그것이다. '있다'라고 말해지는 모든 것을 총괄하며 가장 일반적인 유(類)로서의 존재자를 의미한다. 여기에 존재자는 실재자 뿐만 아니라 비실재자도 포함된다.

존재에 관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1927)에서 존재자는 분명하지만 그것을 규정하는 존재는 '가장 애매한 개념이며 또한 정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존재자란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책상이라든가 집, 자연처럼 대개 사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존재란 이들 존재자를 존재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존재론이란 존재자의 존재를 묻는 것이다. '존재자를 규정하는 존재'를 좀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존재의 의미가 된다. 즉 인식론이 사물존재의 올바른 질서를 규정한다면 존재론은 사물의 존재 의미를 탐구한다. 즉 존재의 의미를 현존재라고 부르는 존재자의 존재의 의미²⁾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상학

1) 김춘수, 『김춘수 전집2-시론』, 문장, 1982, pp. 381~382.

구름은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말이지만, 장미는 낯선 말이다. 구름은 우리의 고전시가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장미는 전연 보이지가 않는다. 이른바 박래어다. 나의 내부는 나도 모르는 어느 사이에 작은 금이 가 있었다. 구름을 보는 눈이 장미도 보고 있었다. 그러나 구름은 감각으로 설명이 없이 나에게 부닥쳐 왔지만, 장미는 관념으로 왔다.(...중략...) 장미를 노래하려고 한 나는 나의 생리에 대한 반항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이국 취미에 지나지 않았다.

의 주제, 즉 탁월한 의미의 현상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존재자의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존재에 대한 인식의 틀을 존재관이라 한다면, 김춘수의 존재관을 김용태³⁾는 사물존재와 의식존재의 이분, 존재차원과 인식(의미)차원의 이원화, 의식존재에 비해 사물존재의 존재적 우위성 부여, 존재차원 탐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인간 의식의 상대적 평가절하 등으로 특징짓고 있다. 그래서 인식의 차원과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존재차원이란 그에게 처음부터 있을 수 없으며, 인식차원으로 환원된 존재차원조차 인간 경험과 무관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승훈⁴⁾은 시적 인식을 바탕으로 김춘수의 존재관을 규명하고 있다. 시에 나타나는 대상이 처음부터 인식하는 주체와 아무 관계없이 실재하는 객체인가, 아니면 인식하는 주체가 있음으로서 비로소 하나의 대상으로 실재하는가의 질문을 통해, 김춘수 초기시를 관념론을 바탕으로 한 언어의 형상화로 보고 있다.

이상을 통해 김춘수 초기시에 나타나는 존재의식은 그의 전집에서 나타나듯⁵⁾, 릴케를 통한 관념철학에 있다. 릴케를 통해 시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 인식의 과정을 통한 언어의 형상화는 궁극적으로 그의 시적 원형을 이루고 있는 유년기의 평화롭던 동일성의 공간에 닿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그의 초기시는 그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 속에서 '존재의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시작(詩作)의 태도와 함께 '그것을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가?'의 형상화의 태도를 표출하고 있다.

2) 이기상, 『하이데거의 실존과 언어』, 문예출판사, 1991, p. 60.

3) 김용태, 「김춘수시의 존재론과 Heidegger와의 거리 <其二>」, 『수련어문논집 제 17집』, 부산여대 국문과, 1990, p. 47.

4) 이승훈, 『현대문학 11』, 1977, pp. 259~260.

5) 김춘수, 『김춘수 전집2-시론』, 문장, 1982, p. 383.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플라토니즘에 접근해 간 모양이다. 이데아라고 하는 비재(非在)가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시야를 지평선 저쪽으로까지 넓혀 주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김춘수 초기시에 나타나는 '존재' 탐구 의식은 '부재'와 '소멸'을 통한 존재 탐구와 사물의 인식을 통한 존재 탐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 '부재'와 '소멸'을 통한 존재 탐구

김춘수의 초기 시에 나오는 존재 의식은 '부재'와 '소멸'에 있다. 여기서 부재와 소멸은 실재하고 있던 것들이 사라짐이 아니라, 시인 생각과 사고 속에 있었던 것들이 사라진 부재와 소멸의 상태이다. 그의 첫 시집인 『구름과 薔薇』에서 보면, 김춘수는 '구름'과 '바람'을 현존보다는 부재의 속성이 강한 대상으로 생각해 '허무'와 '무상'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징은 그의 시가 다분히 관념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가을 벽공에
벽공을 머금고 익어 가는 능금
능금을 위하여 무수한 꽃들도
흙으로 갔다
너도 차고 능금도 차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의 눈은
유리같이 차다

가버린 그들을 위하여
들의 불에 불을 대고
누가 울 것인가
—「죽어 가는 것들」에서⁶⁾

위의 인용 시는 부재와 소멸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 작품 중 하나다. 여기서 김춘수는 '죽어 없어 짐'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을 벽공에 벽공

6) 이 글에 인용된 모든 시의 텍스트는 『김춘수 전집1-시』(문장 1982)에 의거함. 뒤에 나오는 인용시들에 대한 각주는 생략함.

을 머금고 익어 가는 능금'이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삶이라면, 그 속에서 '가을 하늘, 능금, 너'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차다', '흙으로 갔다' 등의 서술어의 소멸적 이미지에 의해 사라진다. 그 사라짐은 거대한 우주의 순환 원리에서 보면 '찰나'의 순간이다.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절대적인 우주의 시간 속에서 하나의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누가 올 것인가'라는 물음 속에서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부재의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울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한적 존재인 사람으로 대표되는 하나의 현상이 사라져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또한 울어줄 대상은 세상만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실존의 개체들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시는 탄생하고 소멸하는 인간 존재, 또는 세상만물의 존재가 지닌 삶의 유한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시를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 또는 세상 만물들이 지닌 현상의 계속적인 태어남과 죽음의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영원한 연속적인 삶의 추구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저마다 사람은 입을 가졌으나
입은
구름과 薔薇되어 오는 것

눈 뜨면
물 위에 구름을 담아 보곤
밤엔 뜰 薔薇와
마주 앉아 울었노니

참으로 누가 보았으랴?
하염없는 날일수록
하늘만 하였지만
입은
구름과 장미되어 오는 것
—「구름과 薔薇」 전문

이 시 역시 앞에서 제시된 부재와 소멸을 통한 존재의 유한성이 내포되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임은 보편화되면서도 특수성을 지닌 대상이다. 구름과 장미로 표상된 임은 존재보다는 부재에 가까운 대상이다. 임이 구름과 장미가 되어 온다고는 했으나, 구름과 장미는 임의 전신이 아니라 부재 하는 임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임은 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지고, 장미처럼 피었다 진다. 따라서 '저마다 사람은 임을 가졌다'는 구절 속에서 임은 보편적이지만, 그 임은 바로 구름과 장미로 규정되는 특수한 존재이다. 여기서 물, 구름, 장미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일순간에 사라지는 유한적인 존재이며, 대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히 자신의 모습을 살아가는 무한의 존재이다. 그러기에 대자연의 무한성 앞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은 이 글의 화자는 눈뜨면 물위에 구름을 담고, 밤엔 뜰에 핀 장미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을 누가 보았느냐는 반문과 함께 그 진실은 하늘, 즉 자연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임은 구름과 장미되어 오는 것"이라는 구절의 반복을 통해, 시상 전개와 시의 의미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구름과 薔薇」는 바로 인간의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부재와 소멸을 통해 진정한 참자아의 존재를 탐구하는 작품이다.

시집 『구름과 薔薇』에서는, 「서풍부」, 「동해」등이 부재와 소멸을 통한 존재인식 또는 존재 탐구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또한 1950년에 나온 『눈』은 주제와 구성에서 『구름과 薔薇』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집으로 선명한 시의식과 정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집에서도 존재의 실상은 부재와 소멸로 이어진다.

어쩌다 바람이라도 와 흔들면
울타리는
슬픈 소리로 울었다.

맨드라미, 나팔꽃, 봉숭아 같은 것
철마다 피곤

소리 없이 저 버렸다.

차운 한겨울에도
외롭게 햇살은
靑石 섬들 위에서
낮잠을 졸다 갔다.

할 일없이 歲月은 흘러만 가고
꿈결같이 사람들은
살다 죽었다.

—「부재」 전문

이 시는 '바람이 지나간다', '꽃이 피었다 진다', '세월이 흘러간다', '사람이 살다 죽는다'는 존재의 행위 구성을 통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무상하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무상함은 '철마다 피는' 행위와 한 겨울의 '낮잠'과 '할 일 없는 세월' 속에서 존재하면서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복과 순환 그리고 영원성에 대한 끝없는 회피⁷⁾가 부재와 소멸로 연결되어 제목인 「부재」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김춘수에게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의미한다. '바람', '꽃', '햇살', '사람'은 자연 또는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제각기 주어진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들이지만 '저 버렸다', '갔다', '죽었다'의 서술어의 소멸적 이미지를 통해 부재와 소멸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의식 속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시간의 영원성 속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 가버리는 무상함의 존재로 인식된다. 이런 현실 시간이 무가치하다는 판단은 자아의 실존적인 허무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시간을 인간의 의식을 떠나서는 고려할 수 없는 존재의 표상이라 할 때, 시간을 인식한다는 것은 곧 자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실시간의 무가치함은 궁극적으로 고독한 인간 존재가 추구해야 할 현실적인 삶의 지

7) 이민호, 『현대시의 담화론적 연구』, 서강대대학원 박사논문, 2000, p. 66.

표를 무화시키켜 버린다.⁸⁾ 이점을 시인은 절대적으로 '할 일 없이 세월은 흘러만 가고'로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김춘수 초기시에는 '부재'와 '소멸'의 이미지를 통한 존재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있다', '없다', '간다', '온다' 등 존재 그 자체에 관련된 시어들이 빈번히 그의 초기시에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할 수 있다. 이런 시어의 사용은 그가 존재 의식을 통해 어떻게 그것을 시로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시작(詩作)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존재 의식을 통해 그를 짓누르고 있던 '역사=이데올로기=폭력'이라는 역사의 폭력성이라는 인식을 이겨내고 존재 인식을 통해 '자연으로 돌아가기', 또는 '유년시기로 돌아가기'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사물의 인식을 통한 존재 탐구

김춘수 초기시에 나타나는 존재 탐구의 또 다른 지향은 사물의 인식을 통해 나타난다. 그의 존재 탐구는 모든 사물들이 사라져 가는 부재와 소멸의 '유한적 존재'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부재와 소멸을 통한 존재 인식 역시 완전한 존재 인식이 될 수 없다. 그렇기에 그는 사물을 통해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⁹⁾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시인 자신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 안에서 사물을 파악하는 것이다.

높을 지키고 켜는
저 수양버들에는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다.

소금쟁이 같은 것, 물장군 같은 것,
거머리 같은 것.

8) 이인영, 『김춘수와 고은 시의 허무의식 연구』, 연세대학교학원 박사논문, 1999, p. 29.

9) 원희재, 『김춘수 시 연구』, 서울여대학교학원 석사논문, 1997, p. 15.

개밥 순채 물달개비 같은 것에도
저마다 하나씩
슬픈 이야기가 있다.

산도 운다는
푸른 달밤이면
나는
그들의 슬픈 魂靈을 본다.

—「늪」에서

이 시의 특징은 의인화된 존재에 있다. 늪이 끌어안고 있는 사물들에 '슬픈' 정서를 이입시킴으로서, '수양버들, 소금쟁이, 물장군, 거머리, 개밥, 순채, 물달개비' 들은 단순한 사물이 아닌 어떤 의미를 지닌 존재가 된다. 이 시에 나타나는 보여지는 사물들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지만, 김춘수의 마음에 지닌 감수성과 만나면서 하나의 의미를 생성해내고 있다. 그것은 슬픔의 형상화이며, 푸른 달밤 아래서 슬픈 혼령을 보는 행위이다. 여기서 화자가 보는 슬픈 혼령의 행위는 그가 보는 것이 아니라, 시인 자신의 감정과 마음 상태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그 속에서 풍경을 이루는 사물과 인간이 하나로 통합되어 그려지고 있다. 그것은 슬픈 존재의 인식이다. 이런 인식은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연결해 주는 하나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는 합일 지향의 모습이다. 시인 자신의 감정과 마음 상태 안에서 사물의 파악하는 작품으로는 「풍경」, 「구름과 薔薇」, 「不在」 등이 있다.

김춘수 초가시에서 사물 인식의 두 번째 단계는 사물의 행동의지 표현이다. 사물의 행동의지 표현이란, 시에 나타나는 사물들이 어떤 감상적인 정조에 의미를 두는 것에서 벗어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 시인의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적 행동을 의미한다.

풀 한 잎

패랭이 한 송이를 발 붙이지 않고

울울히 말라가던
네 심정을 알겠다

뼈를 쥐는
선달 寒天에
가슴 파헤치며 미칠 듯 쾌악하던
네 그 심정을 알겠다

—「비탈」에서

이 시에서 화자가 '너의 심정' 을 알겠다는 것은 존재의 슬픔을 사물에 이입시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물 자체의 행동 표현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풀들의 부재의 상황 때문에 '비탈에 선 풀 한 잎 패랭이 한 송이를 발 붙이지 않겠다' 는 너의 굳은 마음을 화자는 인식한다. 이런 인식은 화자에게도 행동의 표출로 이어져 존재의 부재 상황을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표현된다. 이렇듯 사물의 행동 의지를 표현하는 작품으로는 「오랑캐꽃」, 「旗—청마 선생님께」 등이 있다.

다음으로, 사물 인식의 세 번째 단계는 스스로 존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물의 표현이다.

나는 熱心히 딸기를 보았다. 그 숨숨이 엷은 구멍이 구멍마다 숨을 쉬고 있는 듯 쟁반 위의 딸기는 生動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近處를 完全히 制壓하고 있었다. 온 방안의 空氣가 유리 안의 한 개 쟁반 위에 모조리 吸收되었다.

딸기는 그날 누구보다도 悲壯하였다.

—「딸기」에서

김춘수는 사물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다양한 존재방식과 본질을 표현해 내고 다시금 자신의 존재에 일정정도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작(詩作) 태도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그의 시작(詩作) 태도는 사물 그 자체를 표현했다기보다는 사물을 통해 끊임없이 존재론적 탐구를 지향했

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시작(詩作) 태도는 인간 존재를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오랜 시간동안 스스로에게 던졌던 존재론의 문제들을 자신의 주변에 놓여 있는 가장 단순한 사물에 시선을 옮겨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사물의 새로움을 통해 새로운 삶의 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인에게 있어서 시인의 눈에 비친 딸기는 터질 듯한 긴장 다음 자아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존재의 고통을 극복하는 존재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나'를 긴장시킬 정도로 맹렬하다. 이런 맹렬함은 시인 자신이 인간 존재의 긴장을 넘어서서 존재의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렇듯 스스로 존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작품으로는 「바위」가 있다.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김춘수 초기시에 나타나는 사물 인식을 통한 존재 탐구는 크게 시인 자신의 감정과 마음 상태 안에서 사물, 사물의 행동의지 표현, 존재의 한계 극복 노력을 통해 나타나며 이를 통해, 부재 상황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시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감상' 추구 의식

김춘수 초기시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요소는 바로 '감상' 추구 의식이다. 그의 시가 '감상' 추구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경험하는 현실의 세계와 역사적 체험 속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현실의 상황 속에 나타나는 존재의 부재성과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가져다 준 역사의 폭력성 앞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인위적으로 애상감, 비감 등의 정서를 보여주는 '감상' 추구 의식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존재론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런 '감상' 추구 의식은 감상적 정조 표출과 이국적 취미의 형태로 나타난다.

1) 감상적 정조의 표출

김춘수 초기시에 나타나는 감상적 정조의 표출 그 내부에는 '부재'와 '소멸'이 담겨 있다. 연속되는 절대적 시간 속에서 인간은 유한적 존재라는 인식으로 부재에 대한 슬픔이 내포한다. 그러나 김춘수의 시에 있어서 이러한 감상적 정조는 '현상학적 판단중지'¹⁰⁾에 의해 인식되기 때문에, 부재된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물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감상적 정조가 시로 형상화되고 있다.

늪가 울간을 울리고 있다
 꿈 속에서처럼 하염없이
 늪가 울간을 울리고 있다

내가 잊어 버린 어두한 날을
 실실이 풀어주는 듯
 늪가 울간을 울리고 있다

어두한 거리를
 꼭 한 사람 삼십세의 여자가 지나간다
 내가 잊어 버린 어두한 날을
 그 여자는 울며 간다

늪가 울간을 울리고 있다
 사라질 듯 질 듯
 하염없이 늪가 울간을 울리고 있다

—「황혼」 전문

이 시의 화자는 현실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 위치에서 울간의 음을 듣고 있다. 그 울간의 음은 유년기의 생활을 떠오르게 하는 매개물로 작용한다. 그것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고 꿈속에서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유년기에 대한 회귀 의지는 현실적 삶에서 벗

10) 조혜진, 『김춘수 시 연구』, 성신여대대학원 석사논문, 2001, p. 17.

어나고 싶은 작가의 감상적 정조의 지향이다. 그 속에서 여자는 울고 간다. 김춘수 초기시에 나타나는 '여자'는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움의 존재(「여자」)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여자가 우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울고 있다. 우는 현실 속에서 사라지는 유년기는 작가가 처한 현실의 부재 상황을 보여준다. 울간 음으로 인해 떠오른 유년기의 회상이 '부재'와 '소멸'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또 할아버지의 천년 아니 만년, 눈시울에 눈시울에 실날같이 들던 것. 지금은 무덤가에 다소곳이 돌아나는 이것은 무엇인가?

내가 잠든 머리맡에 실날 같은 실날 같은 것. 바람 속에 구름 속에 실날 같은 것. 천년 아니 만년, 아버지의 아저씨의 눈시울에 어느 아침 스며든 실날 같은 것. 네가 커서 바라보면, 내가 누운 무덤가에 실날 같은 것. 죽어서는, 무덤가에 다소곳이 돌아나는 몇 포기 들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눈물」 전문

이 시는 “눈시울에 눈시울에”를 “바람 속에 구름 속에”로 대치하면서 사람의 삶이 허무한 바람이나 무상한 구름과 같다는 동일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역사가 눈물로 점철되어 있다는 진술은 삶과 죽음이 동일시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나와 너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로 작용하는 것이 무덤가에 돌아나는 풀꽃이다. 풀꽃이 피고 짐을 바라보면서 살아있음과 죽음이 모두 덧없는 것이라는 시인의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속에서 김춘수 초기시의 감상적 정조가 내포된다. 그것은 몇 천년 만년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절대적 시간 속에서 화자가 서 있는 삶이 절대적 우주 속에서 하나의 찰나적 존재라는 허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허무는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눈물의 지속성을 수반한다.

슬픔 위에 슬픔이 덮이고, 덮인 슬픔 위에 바람이 지나가도 질은 그 속 한 장 건드리지 못하고, 햇살이 샘물같이 쏟아지고, 밤이면 달빛이 銀실모양 흘러내려도 흘러내려도……하늘이 울어 땅이 動하고, 드디어 天地가 뒤엎어는 저 나중의 나중에도, 밑바닥 먼 나의 할아버지가 애터지게 울고 간 그 슬픔 한 장 건드리지 못하고……

—「湖」 전문

이 시 역시 앞에서 제시된 「눈물」과 같은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湖 속에는 「눈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존재의 허무와 슬픔이 담겨져 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애터지게 울고 간 슬픔”이다. 삶이 “슬픔”으로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것은 삶의 실상이며, 현실속에 존재하는 비극이다. 이런 존재의 비극성을 통해 김춘수는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한 부재의 존재를 인식한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허무함은 천지가 진동하고 개벽해도 어쩔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이런 존재의 인식은 그의 초기시를 감상적 정조로 이끌어 가고 있는 힘으로 작용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집집 골뚝마다 연기 한 줄기 하소하듯 나부시 일렁거리고,
 꼬부러진 길바닥의 한 모퉁이에는 무엇을 지키는지 혈벚은
 전봇대 종일을 떨고 썼고,

薄暮의 무여질 듯 외로운 이 골목을 지금 먼 業報의 슬픈
 그림자를 끌고 素服의 女人 하나 얼없이 걸어간다

—「풍경」 전문

‘골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한 줄기와 꼬부러진 길바닥 그것을 지키고 선 전봇대 그리고 소복 입은 여인과 그림자’가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이 묘사되는 장면의 나열은 여인의 슬픈 심사와 결합되어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 속에서 “먼 업보의 슬픈 그림자”, “소복”, “얼없이” 등을 통해 여인의 슬픔이 오래 전부터 생겨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슬픔의 업보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부재의 상황이다. 슬픈 현실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존재의 인식과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전경화된 이미지와 환정적인 시어들과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적 구성은 김춘수 초기시가 감상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원인으로 작용¹¹⁾하는 듯 하다. 이외에도 감상적 정조가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는 작품으로는 「장미」, 「담」 등이 있다.

이상을 통해 김춘수 초기시에 나타나고 있는 감상적 정조의 표출은 부재된 현실의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은 존재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부재된 현실 속에서 존재론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다.

2) 이국적 취미의 형태

김춘수 초기시에 나타나는 '감상' 추구 의식의 또 다른 하나로서 이국적 취미의 형태를 들 수 있다. 머나먼 이국에 대한 동경은 그의 초기시가 궁극적으로 원시적 자연에 대한 갈망과 동일한 이념적 지향을 표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김춘수 초기시의 이국적 취미는 그의 유년시절에 대한 동경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시집 『구름과 薔薇』에서 구름은 세계가 단절이 없는 시간, 즉 유년기를 상징하고 있으며, 장미는 이국에 대한 동경으로, 유년기 체험의 또 다른 이면인 호주 선교사네 집 분위기와 통하고 있다. 여기서 장미가 이국적 공간이라면, 구름, 바람, 하늘은 그 공간을 채우는 시간인 동시에 관념적인 성격을 지닌 소재로 작용한다. 그의 초기시의 이런 경향은 바로 현실에 대한 부정이며, 풀리지 않는 부재의 존재에 대한 갈망으로 해석된다.

사양 알타이 넘어서
벽찬 멧부리 갈래 뺨은 허릿등에 銀蛇인 양 굽이치는 실河
를 넘어서
별도 다하는 곳에

하늘보다 검푸른 아랄의 물굽이

11) 권혁웅, 『한국 현대시의 시작방법 연구』, 깊은샘, 2001, p. 249.

바다만큼 질푸른 인도라의 城壁
太陽에도 내용새
안뿌라의 꽃

티무울의 무덤을 밟고 간 巡禮의 무리가
진종일 울리이던
異敎 종소리

서울 사말칸트
棕櫚樹 이파리 한들이고
인더스 간제스 天山을 불어오는
아아 애뜻이 면면한 아라비아 피릿가락
—「바람결」에서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인디아를 거쳐 아라비아 반도로 이어지는 이 시는 감상적인 성격처럼 어떤 현실적 목적도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애뜻이 면면한 아라비아의 피릿가락'이 바람결에 실려 방랑을 진행시킨다. 이런 방랑은 일상적 경험이나 경험적 현실을 완전히 배제시킨다. 그 이유는 유랑은 그야말로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이다. 김춘수 초기시에 나타나는 이국적 취미가 현실 세계의 도피 내지는 부정과 관련된 것이라 할 때, 이런 태도는 시인의 소극적인 내면세계와 관련된다. 적극적인 자세로 역사적 시간 체험을 수용할 수 없을 때, 현실도피는 감상적 정조로 나타나고, 몽상가의 관념적인 기지로 나아간다. 이때 이국은 경험적 현실을 제거한 내면 세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적 체험에서 도피해 현실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공간을 지향한다. 그 공간은 "아라비아"이다. 아라비아가 주는 단어의 연상 작용으로 인해 화자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신비와 환상을 좇아 순례의 길을 바람처럼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푸른 中立地帶에서,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닌 日常에서는 멀고 無限에서는 가까운 稀薄한 空氣의 숨가쁜 그 中立地帶에서, 노스달자의 손을 흔드는 손을 흔드는 너.

旗人대여.

—「旗—청마선생계」에서

유치환의 「깃발」에 대한 패러디 또는 화답의 시로 보이는 이 시는 실존 상황에서 존재의 본원적 향수와 근원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무한에 대한 동경이다. 이런 동경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먼 곳에 대한 이국적 향수이다. 그것은 “노스탈자”를 향해 흐드는 “旗人대”로 표현되고 있는 무한과 영원 세계의 동경이다. 이러한 존재 인식은 그의 초기시가 이국적 취미를 담고 있는 감상적 정조로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이 시에 나타나는 “旗人대”는 유한하고 순간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무한과 영원에 가까워지려는 의지이다. 이러한 무한과 같은 추상적 관념어의 사용은 그의 시가 관념시로 변모를 예고하는 징후¹²⁾로 작용한다.

김춘수 초기시에서 ‘감상’ 추구 의식이 표출되고 있는 점은 그의 시작(詩作) 태도에 있다. 그것은 그만이 지닌 현실에서 부재하는 세계를 시적 언어를 통해 형상화하면서, 현실에 부재하는 것들을 이미지화하려는 고유성이며, 존재 인식의 태도이다. 이를 통해 경험적 현실을 제거한 내면 세계의 존재 지향이 이루어지고 있다.

Ⅲ. 원시적 생명력의 구체화—‘공존’ 의식

김춘수는 부재와 소멸된 현실의 공간 속에서 원시적인 과거로 회귀해 존재의 조건을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근거를 찾고자 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곳이 바로 자연이다. 그의 초기시에 나타나는 자연은 ‘현실’의 반의어이며, 부재된 실존의 공간, 존재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형

12) 이민우, 『김춘수 시 연구』, 고려대학교학원 박사논문, 1999, p. 28.

상화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1

密林을 잃은 草原을 잃은
어찌노 우리들의 살결은 造花의 生理를 닮아간다.

힘은 어디로 갔노?
山岳을 움직이던 原始의 그 힘은 어디로 갔노?

저녁에만 피는, 새하얀 꽃잎을 보고 있는 듯 우리들의 살결은 너무 슬프
다.

……(중략)……

3

어둠 속에서 비밀을 따 먹고 우리들의 살결은 이다지도 가냘프게 고와졌
는가?

별에 쪼이면 창백한 모양이 白血球 같다.
해를 못 봐서, 樹木같이 싱싱하던 우리들의 피는 가슴에 凝結하여 病이 되
겠다.

4

우리들 原始의 健康을 찾아
아! 草原으로 가자.

—「집(2)」에서

1연에는 부재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밀림 과 '초원'은 김춘수가 그리는 원시의 삶의 공간이며 존재의 공간이다. 부재의 상황 속에서 그는 힘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젖어' 들고 있다. 그 슬픔으로 인해 수목같이 싱싱하던 피가 가슴에 맺혀 병이 되고 있다. 이런 부재의 현실에서 그가 찾아낸 것은 바로 초원이다. 그 초원은 원시의 건강이 깃

들어진 곳이다. 초원을 통해 원시로의 회귀, 자연으로의 회귀가 제시된다. 이것은 부재된 현실에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며, 생명력 회복의 방안이다. 이를 위해 작가는 강한 어조로 원시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흙 속에서 바윗틈에서, 또는 가시 덩굴을 헤치고, 혹은 담장이 사이에서도
어제는 보지 못한 어리디어린 짐승들이 연방 기어나고 뛰어 나오고……

太古然히 기지개를 하며 山이 다시 몸부림을 치는데,

어느 마을에는 배꽃이 훈훈히 풍기고, 휘닝청 휘어진 버들가지 위에는, 몇
포기 엉기어 꽃 같은 구름이 西으로 西으로 흐르고 있었다.

—「神話의 계절」에서

이 시에 나타나는 '神話'는 원시 자연의 생명력을 갖춘 공간이다. 그래서 역사와 문명인 현실과 반대로 보여진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神話의 계절」에는 김춘수가 그리는 자연의 모습이 제시된다. 그곳은 '바위틈 사이로 가시덩굴을 헤치고 담장이가 피어나고 그 옆으로 어리디 어린 짐승들이 뛰어 노는' 공존의 세계이다. 그 공간 속에서 자연과 화자는 하나가 된다. 그것은 몰아일체의 상황이다. 몰아일체의 상황은 삶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자연이 되고,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은 사물 그 자체의 존재로 살아 숨쉰다. 공존의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은 자연이라는 그 범주 속에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움직인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 김춘수 초기시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원시적 생명력의 구체화된 공존의식이며 궁극적으로 자연과의 몰아일체 됨을 보여준다. 그 속에서 자연과 삶의 순리를 찾으려는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리로 오너라. 단들이 먼 산울림을 들어 보자. 추우면 나무 꺾어 이글대는 가슴에 불을 붙여 주마. 山을 뛰고 山 뛰고 저마다 가슴에 불꽃이 뛰면, 산땡이고 할미새고 소스라쳐 달아난다.

이리와 배암때는 흙과 바윗틈에 굴을 파고 숨는다. 이리로 오너라. 비가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을 마시고, 천둥이며 번갯불 사납게 호린 날엔, 밀빛 젖가슴 호탕스리 두드려 보자.

아득히 가 버린 萬年! 머루 먹고 살았단다. 다래랑 먹고 견뎠단다.……질 푸른 바닷내 치밀어 들고, 한 가닥 내다보는 보오얀 하늘……이리로 오너라. 머루 같은 눈알미가 보고 싶기도 하다. 단들이 먼 산울림을 들어 보자. 추우면 나무 꺾어 이글대는 가슴에 불을 붙여 주마

—「숲에서」 전문

이 시는 원시적 자연을 배경으로 자연에서 생겨나는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 속에서 자연이 주는 자유를 느끼고 있다. 여기서 '산평의 움직임, 할미새의 달아남, 이리와 배암때의 움직임, 보오얀 하늘, 머루 먹고사는 삶'은 공존의 세계 속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구성 요소들이다. 이런 자유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리로 오너라"를 통해 자연으로 회기를 갈망하고 있다. 또한 "추우면 나무 꺾어 이글대는 가슴에 불을 붙여 주마"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부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공존의 세계가 만든 '이글대며 타오르는 가슴속의 정열'이 자신을 둘러싼 삶을 이끌어 가는 근거가 된다. 이런 삶의 근거는 바로 자연과 더불어 원시적 생명력의 구체화된 공존의식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김춘수가 추구하는 지향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보잘 것 없지만 불꽃같은 열정과 정열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명력을 갖춘 건강하고 왕성한 삶의 추구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원시적 생명력의 구체화된 공존 의식을 이야기한 작품으로는 「여명」, 「푸서리」, 「밝안祭」 등이 있다.

이상을 통해, 김춘수 초기시가 궁극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생명력 있는 자연에서의 공존 의식이다. 이러한 그의 시의식은 그를 둘러싼 실존 인식과 맞물려 시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 형상은 '순수의 자연→ 부재의 현실 상황→ 대자연의 회귀와 공존'이라는 변증법적인 인식이며, 이를 통해 부재된 존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IV. 에필로그

김춘수 초기시에 나타나는 두 개의 시의식의 축은 부재의 상황 속에서 '존재' 탐구 의식과 '감상' 추구 의식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원시적 생명력의 구체화와 대자연 속에서 공존하는 삶을 이루고자 했다. 그에 있어서 부재의 상황은 곧 자연 또는 유년기이다. 역사적 폭력성 앞에서 그는 현실의 존재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했고 자연과 유년기 회귀 욕망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김춘수 초기시의 주된 시의식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연이란 무엇인가' 라는 존재적 인식의 결과이며, 이를 통해 인간이 처한 시간적, 공간적 실존 상황과 결부되어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 속에서 부재된 인간의 존재적 가치들을 인식하는 '존재의 미학'이 원시적 생명력을 갖춘 자연과 그 속에서의 공존 하는 삶 추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김춘수 초기시는 그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 속에서 '존재의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시작(詩作)의 태도와 함께 '그것을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가?'의 형상화를 통해 '자연으로 돌아가기' 또는 '유년시기로 돌아가기'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물 인식을 통한 존재 탐구를 통해 부재 상황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시의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감상' 추구 의식도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궁극적으로 '부재'와 '소멸'의 현실 상황에서 현실에 대한 부정이며, 풀리지 않는 부재의 존재에 대한 갈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춘수 초기시의 의식의 갖는 의의로는 '자연'과 '인간' 또는 '자연'과 '문명'이라는 서로 다른 두 이항적 요소가 일치하는 커다란 대자연을

이름으로써 인간을 비롯한 사물이 제 본질을 상실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있다.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김춘수 초기시가 부재된 상황의 존재 탐구와 그 대상의 인식이라면, 이후에 나타나는 그의 무의미시는 결국 존재인식을 통한 대상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그의 초기시에 나타나는 시의식은 의의를 지닌다.

〈참고 문헌〉

1. 기본 텍스트

김춘수 전집 1-시, 문장, 1982

김춘수 전집 2-시론, 문장, 1986.

2. 단행본

권혁웅. 『한국 현대시의 시작방법 연구』, 깊은샘, 2001.

김두한. 『김춘수의 시세계』, 문창사, 2000.

남기혁. 『한국 현대시의 비판적 연구』, 월인, 2001.

이기상. 『하이데거의 실존과 언어』, 문예출판사, 1991.

이남호 편. 『김춘수 문학 앨범』, 웅진출판사, 1995.

이선영 엮음. 『문예사조사』, 민음사, 1997.

3. 평론 및 논문

김용태. 「김춘수시의 존재론과 Heidegger와의 거리 <其二>」 『수련어문 논집 제 17집』, 부산여대 국문과, 1990.

원희재. 『김춘수 시 연구』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7.

이민우. 『김춘수 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9.

이민호. 『현대시의 담화론적 연구』, 서강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0.

이승훈. 「김춘수론-시적인식의 문제」 『현대시학』, 1977. 11.

이인영. 『김춘수와 고은 시의 허무의식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9.

조혜진. 『김춘수 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1.